

3주년 심포지엄

국가균형발전 3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

2006. 5. 2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차 례

I 정책 추진 이전의 모습

II 비전과 정책

III 추진현황과 성과

IV 향후 추진과제와 미래상

I 정책 추진 이전의 모습



1.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의 성과와 한계

「요소투입형」 성장

- 90년대 이후 성장을 하락 추세
- 국민소득 1만불대 장기정체



[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변화]

「불균형」 성장

- 극심한 수도권 일극 집중
- 지역경제의 낙후 심화



[수도권 집중현황]

2.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

요소 투입형 성장

수도권 일극중심 성장

물질·개발주의적 성장



혁신주도형·창조형 발전

다핵경제권 조성

삶의 질 향상

세계화·정보화·지방화

소득증가·건강·행복 추구



Ⅱ 비전과 정책

1.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

다핵형 · 창조형 선진국가 건설

모든 지역이 혁신역량과 삶의 질 구비

균형발전정책의 개념확대 및 체계화

혁신정책

균형정책

산업정책

공간정책

질적 발전 정책

- 살기 좋은 도시와 농촌
- 수도권외 질적 발전
- 도농상생형 국토공간 조성



Ⅲ 추진현황과 성과

1.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[1]

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

기 구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[03. 4]
-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[04. 1 ~ 05. 27(월) 14100]



제 도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[03. 12]



정 책

- 국가균형발전 대구 구상 [03. 6]
→ 3대원칙 7대 과제
- 신국토구상[04. 1]
→ 5대전략 7대 과제



1.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[2]

-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[04.8]

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[04.11]

균특회계 예산의 지속 확대



-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
- 중앙정부 역할 전환 : 예산배분 → 컨설팅

-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시책 추진의 전기 마련

- 지자체별 예산총액한도[실링]
지정 및 자율편성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업무부담 경감

균특회계에 대한 지방공무원 설문조사 의견



1. 종합 추진실적 및 성과(3)

균형발전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균형발전 성과 점차 가시화



지방의 재정력 지수도 증가추세 지속



2. 혁신정책 분야의 실적[1]

창의적 인재-기술-산업이 결합된
내생적 발전역량의 극대화

기여하시겠습니까?

2. 혁신정책 분야의 실적[2]

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

-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

'04년 113개 대학, 112개 사업단
총 2,200억원 지원

'06년 109개 대학, 122개 사업단
총 2,600억원 지원

※ 교수 6천여명, 학생 19만여명 참여

지방 R&D투자 확대

-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
- 정부R&D예산의 지방투자 비율 확대



지방대학 석·박사 배출수(명)



특허출원(건수)



3. 균형정책 분야의 실적

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
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기회 부여

신활력사업

- 1·2·3차 산업의 융복합화
- 도농교류 활성화 : 5도2촌, 5촌2도
 - 체험마을, 은퇴자마을 조성
 - 장소마케팅 활성화



- 70개 시·군에 9천억원 투자 (3년간)
 - 농촌주민의 소득기반 다양화
 - 도시민의 건강과 활력 증진

지역특화발전특구

-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의 특성화 발전
- 지역투자촉진 : 48개 지역 1조 6천억원

향토자원진흥
특구 22개소



의료·건강
특구 등 11개소



관광·레저
특구 8개소



교육관련
특구 7개소



4. 산업정책 분야의 실적

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

지역전략산업 육성

- 시·도별로 4개 전략산업 선정
 - IT, BT, 신소재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
 -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
- 지역 산업혁신기반 강화
 - TP, RIC, RRC 등 기능활성화 및 연계 촉진

혁신클러스터 육성

- 대덕연구개발특구
 - 기술의 상업화·사업화에 역점
-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
 - 7개 시범단지 운영
 - 경영컨설팅, 공동기술 개발, 맞춤형 교육, 장비지원 등
 - 49개 미니클러스터 가동

5. 공간정책 분야의 실적[1]

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
일극집중의 국토구조를 다핵경제권 구조로 재편

행정중심복합도시

- 다극분산 국토구조로 전환하는 초석
- 우리나라 첨단기술과 문화의 전시장

혁신도시(10개소)

- 공공기관과 산·학·연의 협력으로 지역혁신 선도
- 사이언스파크, 첨단산업도시, 전원도시의 복합도시로 발전

기업도시(6개소)

- 관광레저, 산업교역 등 분야의 투자촉진
- 지역특성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(17조원 신규투자)



5. 공간정책 분야의 실적[2] : 혁신도시

공공기관 이전 개요

- 전국 10개 시·도에 혁신도시 건설

- 이전대상

공공기관 175개

직원수 3만 2천명

-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배치

- 12개 산업특화기능군
- 9개 유관기능군



혁신도시 건설 효과

-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

- 공공기관과 지역대학, 기업 등과 협력
- 지방의 우수인력 확보

- 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

- 민간기업 지방이전 및 지역내 창업촉진
-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
-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

일자리 창출 13만3천개

생산유발 효과 9조원(연간)

부가가치유발 효과 4조원(연간)

5. 공간정책 분야의 실적(3) : 기업도시

낙후지역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큰 지역에 기업주도로 도시건설
특정산업과 연구·교육기능을 집적시켜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

유형과 투자규모

산업교역형

1개소 2조 7천억원

6개지역

17조

5천 7백억원

- 
- 원주(첨단의료)
 - 충주(테크노폴리스)
 - 태안(테마파크)
 - 무주(워터파크)
 - 무안(항공물류, 휴양)

6. 질적발전 정책의 성과[1] :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

비전
목표

‘공간의 질’과 ‘삶의 질’을 제고하는 ‘살기 좋은 지역’ 창조
- 쾌적하고, 아름답고, 특색있는 지역 만들기 -

5 대
과제

고품격
생활환경
조성

경관과
건축문화의
질 제고

도농상생형
복합생활공간
조성

지역공동체
복원 및
형성

지역별
특화브랜드
창출

6. 질적발전 정책의 성과[2] : 수도권외의 질적 발전

인구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
세계적 대도시권으로 도약

인구 안정화

- 계획적 관리체제의 도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관리
- 2020년 수도권 인구를 47.5% 수준으로 유지

<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중 변화 >



삶의 질 향상

- 공원, 숲 등 녹지를 최대한 확보
- 환경오염 저감
- 경관·미관 개선
- 역사·문화의 복원 및 확충





IV 향후 추진과제와 미래상

1. 향후 추진 과제

➡ '05년 이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 실행단계로 진입



➡ 질적발전정책을 포함한 5대 핵심선도과제에
역량을 집중하여 성과확산 주력



2. 균형발전사회의 대내비전

각 지역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따라
특성화 발전을 이루고
 지역간에는 **동반성장**을 이루어
 국토 전체의 **생산성과 경쟁력**을 극대화



3. 균형발전사회의 대외비전



정부와 지역이 힘을 합쳐
동북아중심국가로 도약하고 **세계화에 능동적**으로 대응

감사합니다

